

군산시 나운2동 일미짜장·약초식당, 착한가게 가입

✎ 김기현 | ⓒ 승인 2025.12.22 10:00



군산시 나운2동 일미짜장과 약초식당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군산시

군산시 나운2동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가입이 잇따르며 연말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백만·남귀우)는 22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두 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착한가게에 새롭게 동참한 곳은 일미짜장(대표 홍혜경)과 약초식당(대표 전미경)이다. '일미짜장'은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중국음식점으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약초식당'은 예스트몰 거리에서 새롭게 문을 연 흑염소 요리 전문점이다.

홍혜경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자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미경 대표는 “평소 나눔과 기부에 관심이 많아 착한가게 가입을 먼저 알아봤다”며 “착한가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나운2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백만 민간위원장은 “나운2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남귀우 공공위원장은 “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복지허브화 사업 등 지역 복지 특화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며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김기현 sisando7@naver.com